

# “자연을 품은 도시 무주 만나요”

### ‘자연유산·자연사자원 공동학술조사 연구 성과 특별전시회’ 무주최북미미술관서 개최

무주군이 자연유산·자연사자원 공동학술조사 연구 성과 특별전시회를 오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무주최북미미술관 특별전시실(1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무주군과 국가유산청, 국립중앙과학관, 경북대학교자연사박물관이 공동 주관한 이번 전시는 무주군이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진행했던 ‘무주군 자연유산 및 자연사 자원 공동학술연구’ 조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조류와 포유류, 곤충, 식물 등 자연사 자원 표본과 연구 조사 사진, 결과, 영상, 채집 도구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반딧불이와 수달, 어류는 반딧댄드 곤충박물관에서 볼 수 있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박물관 과정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일대의 생물상과 역사·경관적 가치의 우수성을 확인하고 천연기념물이나 명승 같은 자연유산을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주반딧불축제 기간(8. 31.~9.



무주군 자연유산·자연사자원 공동학술조사 연구 성과 특별전시회 포스터

8.)에 오셔서 축제도 보시고 전시도 관람해 보시면 기쁨도 배가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지난해 4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

부 국립중앙과학관과 경북대학교 자연사박물관 간 자연유산의 공동 학술 조사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고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무주 일원 반딧불이와 그 먹이 서식지 3곳(무주읍 가옥리 가림마을, 설천면 장덕리 수한마을, 무풍면 금평리 울림리)과 명승 2곳(무주 구천동 일사대/파회수심대 일원)을 비롯해 군 수요지역 4곳(백운산 생태관광승, 갈골 반딧불이 서식지, 전도 후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계절별 공동조사(2023년 4월, 7월, 9월, 11월)에는 10개 기관 36명의 전문 연구자들이 참여했으며 공동학술조사 결과는 올해 4월 보고서로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조류, 포유류, 양서·파충류, 식물, 곤충, 저서무척추동물, 어류 등 주요 분류군의 계절별 분포 현황과 △조사 지역 일원의 생물다양성 목록 △조사 지역 일원 고유종, 특산종, 미기록종 발굴 현황 등이 담겼다. /무주=전문선 기자

# 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사업’ 공모 선정

### 무주군, 무주 반디 그림책 창작소 ‘산골책방’ 조성

무주군이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4년 지역 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사업비 8억 원(국비 4억, 군비 4억)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최북미술관 유휴공간에 무주 반디 그림책 창작소 ‘산골책방’을 조성하는 것으로, 서류와 현장실사, 대면 심사로 진행된 평가에서 무주군은 지역의 문화시설 거점지역에 창의적 문화 체험활동 공간을 조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 계기를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호평을 받았다.

반디 그림책 창작소 ‘산골책방’은 ‘그림책’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생애주기별 가족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자연+곤충 반딧불이’와 결합한 그림책 제작, 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문화관광자원을 육성하는 창구가 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산골책방X굿즈#(그림책방 & 로컬굿즈 판매)’과 ‘그림책방 & 로컬굿즈’, ‘그림책방X시작(그림책·전시·공연·시장)’과 실내외 그림책 전시장·공연장·시장을 운영한다는 계획으로, 이들 공간에서는 그림책을 주제로 한 독립서점을 비롯해 디자인 문구점, 자연특설시 무주의 특성



무주에 최북미술관 유휴공간을 살린 지역역(대동 문화정체 보듬기)으로, 무주 반디 그림책 창작소 ‘산골책방’이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을 담은 굿즈 상품과 그림책을 모티브로 한 봉제 인형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어린이 산골극장(아외마당/우천 시 소공연장)에서는 매주 금요일 영화 상영과 애니메이션 체험 키트 제작 등의 프로그램을, 전시장과 공연장에서는 그림책 큐레이션 전시를 비롯한 공예 연계 체험, 그림책 내용을 주제로 한 인형극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주군청 태권문화와 문화정책팀 임정희 팀장은 “한 곳에 집중된 문화관광 시설 기능을 확대해 무주민의 문화관광 인프라를 강화코자 했다”며 “공모 선정으로 기회를 잡은 만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진안군, 진로진학컨설팅 교육컨설턴트 양성과정 진행

진안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 까지 3일간 진안읍 사동팔달센터에서 지역주민 및 교육관계자를 대상으로 ‘2024년 진안군 진로진학 컨설팅 교육컨설턴트 양성 기초과정’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진안형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의 일환으로 2024년 진안군 진로·진학컨설팅 영역을 수행한 전문업체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교육전문가를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을 장기적 목표로 하며, 올해 첫 실시되는 파일럿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청년협의체 ‘장수 청년 야시장’ 성료

장수군 청년협의체(회장 김영록)는 지난 22일 오후 6시부터 한누리전당 야외 공연장에서 ‘제3회 장수 청년 야시장’을 개최했다.

장수군 청년협의체의 주최·주관으로 진행된 ‘제3회 장수 청년 야시장’은 지역 주민 공연, 플리마켓, 체험부스, 오락기 등이 운영돼 관내 청년들의 네트워킹 활성화 및 지역사회와의 상호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경제의 상생을 위한 청년협의체의 의지 운영에 관내 청년들을 적극 독려해 누구나 원하는 음식을 포장해 행사를 즐길 수 있었다.

플리마켓에서는 장수군 자체 생산 물품 홍보·판매를 통해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장수군의 우수한 제품을 알렸으며, 청년뿐 아니라 남녀노소 다함께 공연을 즐기며 야시장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최훈식 군수는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꾸려간 행사가 지역 주민들 화합의 장이 된 것 같아 기쁘다”며 “향후 지속적인 야시장 개최로 장수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장수군을 대표하는 청년 축제로 자리 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 막바지 준비 박차

### 9월 6일 개장 예정... 300여 생산농가 650여 품목 출하 최종 점검

진안군은 오는 9월 초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위치: 진안읍 학천변길 37-9) 개장을 앞두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진안로컬푸드 직매장 진안점’은 소규모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주민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이 투입돼 진안읍 흥산항상센터 부지 내 연면적 316㎡, 지상 1층 규모로 지어졌다.

전체 매장은 지역 농축산물 판매를 위한 농산물·신선·정육코너와 소비자 편의시설·사무실 등을 갖춘 복합

시설물로 구성된다.

현재 300여 농가 650여 품목을 확보했으며 이달 마무리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출하 대상을 최종 점검하며 직매장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운영은 현재 전주시 호성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진안로컬푸드직매장’ 운영조직인 진안로컬푸드영농조합법인에서 맡을 예정이다.

군은 특히 개장예정일인 9월 6일 전까지 생산농가 출하 품목 정비와 전방위적인 소비자 홍보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준성 군수는 “로컬푸드직매장 진안점 운영은 ‘군민이 행복한 진안군 미래먹거리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군 푸드플랜(먹거리전략)’의 첫 걸음”이라며 “소규모 농가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창출 기회를, 소비자에게는 건강한 지역 먹거리를 제공해 이를 토대로 지역의 특색을 살린 먹거리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한국의 사모니 장수 트레일 빌리지 II’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지역특성살리기 공모사업은 각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지역민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전국에서 68개 지자체가 신청해 장수군을 포함한 10개 지자체가 최종 선정됐다.

장수군은 이번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에 외딴 마을 10곳에 마을보급소(CP)를 조성해 지역 활력을 물론 경제적 효과를 소외된 곳까지 전달한다는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 ‘한국의 사모니 장수 트레일 빌리지 II’ 사업을 신청하여 최종 선정되면서 국비 5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트레일빌리지 고도화 및 트레일스트리트 시범 조성을 추진할 예정으로 지역 청년들과 로컬, 그리고 트레일러너를 잇는 트레일스트리트를 ‘미디어 파사드’를 통해 상징적으로 구현해 군의 랜드마크로 조성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향후 행안부의



컨설팅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되며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2025년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지역특성살리기 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체험하는 생활권 단위 특색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장수군만의 독특한 매력을 살려 주민들은 물론 관광객들이 머물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수군은 2023년 행안부 로컬브랜딩 추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발전기금 등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 제고에 적극 힘쓰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무주 태권도원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 개최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과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광)가 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총재 조정원)이 주최하는 ‘무주 태권도원 2024 세계태권도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이 9월 6일부터 8일까지 태권도원 T1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가운데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가

함께 열린다.

‘옥타곤다이아몬드게임’은 G-4 등급의 국제 대회로 혼성, 개인, 페어 경기 순으로 이루어진다. 태권도진흥재단은 대회 기간 태권도원을 찾은 방문객들을 위해 무료입장을 비롯해 T1 경기장 ‘문화 체험존’에서 매일 오후 1시부터 ‘태권도 가상 격투’ 체험과

‘태권도 한지 드림캐처 만들기’ 체험, ‘네 컷 사진 촬영’ 등 다양한 체험을 ‘무료’로 진행한다.

특히, 대회 사진 관람을 신청한 450명에게만 주어지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 중으로 30일까지 이벤트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특별한 기념이 될 ‘대회 AD 카드’ 발급과 ‘무주사랑상품권’을 증정하며, 참가 희망자는 태권도원 또는 반딧불축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